

2008년 4/4분기 축산관측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25일 2008년 4/4분기 축산관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육우는 산지가격 증가, 젖소는 사육두수 감소, 돼지의 산지가격은 25~27만원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란계의 사육수수는 증가, 육계의 사육수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본지는 축종별 전망을 요약해 게재한다.



한육우

송아지 안정제 등으로 산지가격 소폭 상승

인공수정 증가로 9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11.7% 증가한 247만9천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사육두수는 11.1% 증가한 244만7천두로 전망했다.

7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반입량은 4,500톤.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3.9%에 불과했지만 불안심리 확산으로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수입량 및 도축두수 증가했다. 그러나 추석 특수 송아지 안정제 발동 등으로 9~11월 한우산지가격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우 600kg 암소산지 가격은 415~425만원대, 수소 355~365만원대, 수송아지 가격은 155~165만원대로 전망된다.



젖소

3분기 원유 생산량 감소 전망

사료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올해에도 젖소 사육두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2세 미만 사육두수 감소와 사료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젖소 사육두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9월 사육두수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44만4천두로 전망된다. 3분기 원유생산량은 착유우 두수 감소, 사료가격 상승과 함께 고온다습한 기후 여건으로 생산량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51만8천톤으로 전망된다.



돼지

9~11월 돼지가격 25~27만원

사료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돈수가 줄어든 결과 9~12월 돼지 사육두수 또한 전년보다 5%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사육두수는 전년보다 4.8% 감소한 919만7천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9~11월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기간보다 21~31% 높은 25~27만원이 전망된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돼지고기 공급량이 9월 이후 전차 늘어나는 시기로 9~11월 산지가격은 6~8월보다는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산란계

9~11월 계란가격 보합세 전망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증가하고 도태의향이 낮아 9,12월 산란용 마리수는 전년 9월 5천5백12만

수보다 4.6~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란가격은 AI, 방학 등으로 소비가 감소하여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중순이후 다소 상승하여 8월 22일의 경우 979원이었다. 향후 9~11월 계란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6~8월과 비슷한 900~1,000원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9월 상순까지는 계란가격이 전망치보다 일시적으로 높을 수 있다.

육계

육계가격 약세 전망

8월에 이어 9월 육계두수도 병아리 생산수수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8.4%감소한 5천4백91만수로 전망되며 전월대비 27.5% 감소했다. 8월은 발복과 올림픽으로 소비는 증가하고 무더위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육계가격이 생체 kg당 1,800원~2,100원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하지만 9월 육계가격은 도계수수가 감소하나 재고가 여전히 많아 계열업체 생산원가를 다소 상회하는 1,500~1,700원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10월 이후 종계 환우 계군 생산 가담, 닭고기 수입 급증, 비축 부담 등의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종계도태가 지연될 경우 연말까지 공급과잉이 우려된다.